

2027학년도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인문계열)

성명

수험번호

문항	구성	배점	시험 시간
13문항	국어 8문항(1~8번) 수학 5문항(9~13번)	130점	80분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 안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칸을 벗어난 내용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국어 문항은 문항에서 요구한 조건(어절 수, 글자 수, 형식)에 맞추어 답만 기재합니다.
4. 수학 문항은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합니다. 풀이 과정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하며,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쓴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고, 수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1

10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민 자치회장: 오늘은 아파트 단지 옆 공터를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지는 저녁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이 공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 담당자: 구청도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공유 주차장인 만큼 주민뿐 아니라 인근 시설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개방했으면 합니다.

주민 자치회장: 밤늦게 차량이 드나들면 소음이 발생하고 외부 차량이 장시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구청 담당자: 인근 체육 시설의 저녁 프로그램이 오후 10시에 끝나므로 이용자들이 출차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출입구에 경적 사용 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장기 주차 차량을 확인한다면 자정까지 개방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자치회장: 주민들이 자정까지 개방하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청에서 밤 10시 이후 이용 차량의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구청 담당자: 그 요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청소와 이용 문의 처리는 주민 자치회에서 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 자치회장: 시설 고장 수리와 야간 순찰은 주민들이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청소와 이용 안내는 주민 자치회가 맡을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 시설 수리와 야간 순찰은 구청이 맡겠습니다. 다만 주차선 도색과 차단기 설치에 드는 비용 가운데 30%는 주된 이용자인 주민 측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 자치회장: 주민 자치회비만으로 설치비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청소와 이용 안내를 맡으면 구청의 관리 인력 비용도 줄어드니, 그 절감분을 주민 부담액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구청 담당자: 주민들의 관리 활동을 비용 부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이 설치비를 부담하고 주민 자치회가 청소와 이용 안내를 맡는 것으로 합의하지요.

주민 자치회장: 좋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리 인원을 모집하겠습니다.

<보기>의 ①,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 보 기 〉

두 협상 참여자는 쟁점별로 상대방의 제안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 ① 주민 자치회장은 개방 시간과 관련한 구청 담당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야간 이용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② 주민 자치회장은 자신들이 관리 업무의 일부를 맡으면 구청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그만큼을 주민 측의 비용 부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많을수록 한 사람이 도움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도움 행동은 사건을 알아차리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어느 한 단계에서 판단이 중단되어도 도움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목격자의 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위급하다고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판단의 단서가 된다. 상황이 모호할 때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확신이 없어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때 서로의 침착한 모습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잘못 추측하여, 자신도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현상을 다윈적 무지라고 한다. 반면 경보가 울리거나 부상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는 등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하면 타인의 표정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 이 현상은 약해질 수 있다.

상황을 위급하다고 해석했다라도 자신이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면 도움은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 목격자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돕거나 자신보다 능숙한 사람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처럼 개인이 느끼는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약해지는 것을 책임 분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직접 가리켜 할 일을 맡기거나 누가 행동했는지가 드러나는 조건에서는 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책임 분산이 줄어든다.

두 현상은 모두 주변 사람의 존재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작동하는 단계가 다르므로 대응 방법도 구별해야 한다. 다윈적 무지를 줄이려면 위험을 알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군가가 먼저 우려를 말하여 상황 해석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책임 분산을 줄이려면 ‘누군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막연히 요청하기보다 한 사람을 가리켜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해야 한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분명히 정하는 방식을 명시적 지목이라고 한다.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언제나 행동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한 수단이 없고, 행동에 따르는 위험이나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마지막 단계에서 도움이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의 위급성이 분명하고, 특정인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그 사람이 실행 방법과 수단까지 갖춘 경우에는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방관자 효과는 사람의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상황 해석, 책임 수용, 실행 가능성이라는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고 핵심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①에는 <보기>에 제시된 인물의 기호를, ②에는 해당 현상의 이름을 쓰고, ③에는 제4문단에서 알맞은 말을 2어절로 찾아 쓰시오.

〈보 기〉

공공시설에서 방문객 한 명이 쓰러지자 갑, 을, 병은 모두 이를 알아차리고 위급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이라고 여겼고, 을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안내 직원에게 “을 씨, 지금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고, 병은 자신이 신고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세 사람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①)이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 탄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서로 침착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②)이다. 안내 직원이 여러 사람에게 막연히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을을 정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한 것은 (③)을 활용한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책임과 도움 행동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①에는 제3문단에서 현상의 이름을 2어절로 찾아 쓰고, ②와 ③에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 기 〉

다음은 온라인 응급 신고 훈련을 가정한 것이다. 모든 참가자는 상황이 위급함을 알고 신고 방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A 조건에서는 여러 참가자에게 동시에 신고 요청을 보내되 역할을 정하지 않았고, 각 참가자의 신고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B 조건에서도 역할을 정하지 않은 것은 같지만, 신고 여부가 참가자의 이름 옆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①)이 작용할 수 있으며, B 조건에서는 A 조건보다 책임이 분산되는 정도가 (②),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③).

〈 조 건 〉

②와 ③에는 ‘커진다’와 ‘작아진다’를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할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의 광합성에서 빛을 흡수하는 일과 이산화 탄소를 유기물로 바꾸는 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캘빈 회로는 그 막 바깥의 스트로마에서 진행된다. 두 과정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캘빈 회로에 공급되므로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명반응에서는 엽록소가 흡수한 빛에너지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틸라코이드 막을 사이에 수소 이온의 농도 차가 형성되고, 이를 이용해 ATP가 합성된다. 전자는 다시 빛에너지를 받은 뒤 NADP^+ 에 전달되어 NADPH를 만든다. ATP는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NADPH는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를 다른 물질에 건넨다. 이처럼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도록 전자를 제공하는 능력을 환원력이라 한다.

전자가 물에서 출발하여 NADPH에 이르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ATP와 NADPH가 모두 생성된다. 반면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빛에너지로 들뜬 전자가 NADPH 형성에 쓰이지 않고 전자 전달계로 되돌아간다. 이때 수소 이온의 농도 차가 커져 ATP는 추가로 합성되지만 NADPH와 산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캘빈 회로에 NADPH는 충분하지만 ATP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순환적 전자 흐름이 그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NADPH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흐름만으로 캘빈 회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캘빈 회로는 탄소 고정, 환원, RuBP 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탄소 고정 단계에서는 이산화 탄소가 5탄소 화합물인 RuBP와 결합하고, 이렇게 생긴 불안정한 6탄소 화합물이 두 분자의 3-PGA로 나뉜다. 이어지는 환원 단계에서는 ATP가 제공한 에너지와 NADPH가 제공한 전자를 이용하여 3-PGA가 G3P로 바뀐다. 생성된 G3P 중 일부는 회로를 벗어나 탄수화물 합성의 재료가 되고, 나머지는 회로 안에 남는다.

RuBP 재생 단계에서는 회로에 남은 G3P가 여러 반응을 거쳐 재배열되고, 이 과정에서 ATP가 소비되어 RuBP가 다시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는 NADPH가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RuBP가 이미 존재한다면 ATP나 NADPH가 새로 공급되지 않아도 탄소 고정은 잠시 일어날 수 있지만, ATP가 없으면 환원과 RuBP 재생이 지속되지 못한다. 또한 NADPH가 없으면 3-PGA가 G3P로 환원되지 못하므로 회로 전체가 곧 멈춘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①에 들어갈 말은 제2문단에서 3음절의 명사로 찾아 쓰고, ②와 ③에는 각 실험에서 주로 관찰된 캘빈 회로 단계의 이름을 제4·5문단에 쓰인 그대로 쓰시오.

〈보 기〉

NADPH가 고에너지 전자를 건네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게 하는 (①)은 ATP가 제공하는 에너지와 구별된다. 이를 바탕으로 캘빈 회로의 중간 산물을 관찰하는 두 실험을 해석하였다. 실험 X에서는 방사성 탄소로 표지한 이산화 탄소를 공급하자 그 탄소가 3-PGA에서 가장 먼저 검출되었고, 이 짧은 시간 동안 ATP와 NADPH의 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므로 (②)가 주로 관찰된 것이다. 실험 Y에서는 이산화 탄소의 공급을 막고 회로에 남아 있던 G3P의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NADPH의 양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ATP가 감소하고 RuBP가 증가했으므로 (③)가 주로 관찰된 것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단은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동의 목표에 몰입할 때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결속 자체가 언제나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단 사고란 구성원들이 집단의 조화와 합의를 지키려는 나머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현상이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소속감을 잃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할 수 있지만, 응집력만으로 집단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강한 결속은 오히려 활발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집단 사고의 가능성은 응집력에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결합할 때 커진다. 집단이 외부의 비판과 정보를 차단하거나, 지도자가 토의 초기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론을 밝히면 구성원은 그 방향에 맞추어 의견을 조정하기 쉽다. 구성원의 경험과 배경이 지나치게 비슷하고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관점의 폭이 좁아진다. 여기에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나 최근의 실패로 인한 불안까지 더해지면, 집단은 충분한 검토보다 빠른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구성원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도 관계를 해칠까 염려하여 발언을 삼갈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에게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자기 검열은 더욱 강해진다. 그 결과 토의에서는 기존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주로 공유되고, 불리한 자료는 중요하지 않은 예외로 취급된다. 구성원들이 집단의 도덕성과 능력을 과신하면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 집단의 주장을 편견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과정은 실제 의견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겉으로 드러날 통로를 막는 것이다.

집단 사고가 진행될 때에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결정에 어긋나는 증거가 나와도 기존 선택을 합리화한다. 일부 구성원이 침묵한 까닭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 만장일치의 환상을 품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표면적 합의는 검토할 대안의 수를 줄이고, 선택한 방안의 위험과 실행 실패에 대비한 계획까지 소홀하게 만든다. 따라서 회의에서 반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원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집단 사고를 줄이려면 반대가 실제로 표현되고 검토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도자는 토의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자신의 선호를 밝히지 않고, 특정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집단을 여러 소집단으로 나누어 같은 문제를 따로 검토한 뒤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켜 전제와 근거를 비판하게 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에는 다시 회의를 열어 빠뜨린 위험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장치는 합의를 무조건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결속을 유지하면서도 판단의 오류를 드러낼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보기>는 집단의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관점과 그 관점에서 살펴본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①)은 제시문의 제4문단에서 찾아 2어절, 7음절로 쓰고, (②)는 제시문과 <보기>를 함께 고려하여 ‘토의 전 개별 판단의 기록’과 ‘외부 의견의 검토’를 모두 포함하는 9어절의 문장으로 쓰시오.

〈 보 기 〉

정보 표집의 관점에 따르면 집단 토의에서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알고 있는 정보가 일부 구성원만 아는 정보보다 반복해서 언급되기 쉽다. 이를 완화하려면 토의에 앞서 각자가 자료를 판단한 결과를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기관의 대책반은 책임자가 지지한 방안을 승인하면서, 회의 전에 전달된 외부 안전 전문가의 경고 자료를 승인 뒤에야 읽었다. 이때 반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원의 찬성으로 받아들인 것은 (①)을 보여 준다.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책반은 다음 회의에서 (②).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지출대는: 낮은 소리로 지껄이는. * 해설파: 해가 질 무렵에. * 질화로: 질흙으로 구워 만든 화로. * 함추름: 함초름, 젖어서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 석근: 성근, 드문드문한. * 우지짓고: 울며 지저귀고.

<보기>는 (가)와 (나)의 정서와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해설한 것이다. <보기>의 ①에 해당하는 시행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

두 작품은 대상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나)가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는 고향의 장면을 펼쳐는 것과 달리, (가)는 마지막 연에서 화자를 이름 없는 인물로 대상화하며 그 정서와 신체의 후면을 한 시행에 함께 제시한다. 이 차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시행이 ‘(①)’이다. 또한 (가) 첫 연의 ‘파란’이 녹이 낀 거울과 욕된 자기 인식에 연결되는 데 비해, (나) 3연의 같은 계열 색채는 화자가 지향하는 하늘을 꾸미며,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바로 다음 행에서 ‘(②)’라는 시어로 직접 드러난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또 물었다.

"육칠 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도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지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지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울울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뺨뚫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끈 듯,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십 년 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재우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중략)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지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즈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드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뒤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궤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 준 것이었다. 궤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 현진건, 「고향」

* 역둔토: 역참과 군대에 딸렸던 국유 농지. * 남부여대: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님.

<보기>는 작품에 나타난 일제 강점기의 수탈 구조와 인물의 처지, 서술자의 인식 변화를 해설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작품에서 찾아 쓰고, ③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그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 보 기 〉

농민들이 생산한 소출의 대부분을 빼앗기는 데에는 토지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내세워 수취 단계를 하나 더 만든 (①)이 작용한다. ‘그’가 막벌이꾼으로 떠돌고 고향마저 잃은 것은 개인적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농민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함께 무너뜨린 결과이다. 그의 옛 혼인 상대가 몸값을 갚고도 더 큰 빚에 매여 병든 사연 역시 약자의 삶을 소모하는 동일한 수탈 구조의 또 다른 양상이다. 두 사람의 삶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읽으면, 착취 관계의 종료를 가해자의 선처인 듯 서술하여 오히려 그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반어가 성립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부사가 (②)이다. 또한 ‘나’의 태도는 한 승객에 대한 불편함과 연민을 넘어, 그의 눈물에서 식민지 사회 전체의 고통을 읽는 데까지 나아가며 이러한 인식의 도약은 (③)에서 완결된다.

〈 조 건 〉

①은 2어절의 명사구로, ②는 한 단어의 부사로 쓸 것. ③은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만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의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 어간이고, 어간 뒤에 붙는 부분이 어미이다. 예를 들어 ‘먹다’의 어간 ‘먹-’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활용형 ‘먹어’가 된다.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형태의 변화가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면 규칙 활용으로 본다. 반면 특정한 용언에서만 어간이나 어미가 일반적인 규칙과 다르게 바뀌면 불규칙 활용으로 본다. 따라서 활용의 규칙성을 판단하려면 활용형만 보지 말고 기본형의 어간과 결합한 어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어간 끝의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나 ‘우’로 바뀌는 것은 ㅂ 불규칙 활용이다. ‘돕다’에 ‘-아’가 붙으면 ‘도와’가 되고, ‘출다’에 ‘-어’가 붙으면 ‘추워’가 된다. 그러나 ‘잡다→잡아’처럼 ‘ㅂ’이 유지되는 용언은 규칙 활용을 한다. ㄷ 불규칙 활용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ㄷ’이 ‘ㄹ’로 바뀌는 경우이다. ‘듣다→들어’가 이에 해당하지만, ‘달다→달아’는 ‘ㄷ’이 유지되므로 규칙 활용이다.

ㅅ 불규칙 활용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ㅅ’이 없어진다. ‘짓다→지어’가 그 예이며, ‘벗다→벗어’처럼 ‘ㅅ’이 유지되면 규칙 활용이다. ㄴ 불규칙 활용은 ‘부르다→불러’처럼 어간 끝 ‘ㄴ’이 ‘-아/-어’와 결합할 때 ‘ㄴ’이 탈락하고 앞 음절에 ‘ㄹ’이 나타나는 것을 대표적인 양상으로 한다. 불규칙 활용의 종류와 기본형을 알아내려면 이러한 결합 전후의 형태 변화를 대조해야 한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예문 속 용언의 활용형을 탐구한 것이다. <보기>의 ① ~ ④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 기 〉

학생은 예문에 쓰인 용언의 활용형을 기본형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봉사자는 길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봉투에 넣었다.”의 ‘주워’는 (①)에 해당한다. “아이들은 강변 길을 걸어 보았다.”의 ‘걸어’는 ㄷ 불규칙 활용이므로 기본형은 (②)이다. “며칠 쉬자 감기가 나아 다시 등교했다.”의 ‘나아’는 (③)에 해당한다. “친구들은 정답을 몰라 한참 고민했다.”의 ‘몰라’는 ㄴ 불규칙 활용이므로 기본형은 (④)이다.

〈 조 건 〉

①과 ③은 제시문에 제시된 불규칙 활용의 명칭으로 쓰고, ②와 ④는 ‘-다’가 붙은 기본형으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9

10점

실수 a, b 에 대하여 곡선 C 의 방정식은 $y = 3^{x-a} + b$ 이다. 곡선 C 를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곡선을 C' 이라 하자. 두 곡선 C, C' 의 두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1, 2일 때, $3^a + 2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

10점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_n\}$ 이 $\sum_{n=1}^6 a_n = 51$ 을 만족시킨다. 실수 c 에 대하여 세 수 $a_2 + c, a_5 + c, a_{11} + c$ 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b_n\}$ 의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일 때, c 와 $\sum_{n=1}^5 b_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1
10점

이차함수 $f(x)$ 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가 있다. $x \neq -2, x \neq 1$ 일 때

$$g(x) = \frac{xf(x) - 4}{(x-1)(x+2)}$$

이고 $g(1) = 5$ 이다. $f(3)$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
10점

양수 a 에 대하여 점 $P(x, x^2 + x + a)$ 와 직선 $y = -x + 2$ 사이의 거리를 $f(x)$ 라 하고, $g(x) = \{f(x)\}^2$ 이라 하자. 자연수 k 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가

$$s(t) = \frac{1}{4}t^4 - \frac{k}{3}t^3 + a(k-3)t \quad (t \geq 0)$$

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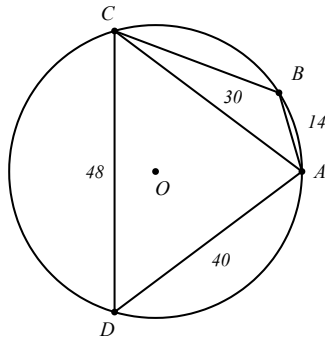
(가) 곡선 $y = g(x)$ 위의 $x = 0$ 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6이다.

(나) 점 Q 는 시각 $t = 0$ 에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지 않는다.

상수 a 의 값과 가능한 모든 자연수 k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3
10점

그림과 같이 네 점 A, B, C, D 가 원 O 위에 차례로 놓여 있고, $\overline{AB} = 14$, $\overline{BC} = 30$, $\overline{CD} = 48$, $\overline{DA} = 40$ 이다.



원 O 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국어

1 10점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2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3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4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5 10점	① _____		② _____
6 10점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_____		
7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8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문제 9	10점

문제 10	10점

문제 11	10점

문제 12	10점

문제 13

10점

[illegible]

득점

/ 130점

2027학년도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인문계열)

문항 13문항	구성 국어 8문항(1~8번) 수학 5문항(9~13번)	배점 130점	시험 시간 80분
-------------------	---	-------------------	---------------------

빠른 정답

수학은 문항별 채점 기준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국어

문항	정답	배점
1	① 주민들이, 주십시오. ② 저희가, 어떻습니까?	10점
2	① 을 ② 다원적 무지 ③ 명시적 지목	10점
3	① 책임 분산 ② 작아진다 ③ 커진다	10점
4	① 환원력 ② 탄소 고정 단계 ③ RuBP 재생 단계	10점
5	① 만장일치의 환상 ②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10점
6	① 슬픈, 뒷모양이 ② 그리워	10점
7	① 중간 소작인 ② 특별히 ③ 나는, 듯싶었다	10점
8	① ㅂ 불규칙 활용 ② 걷다 ③ ㅅ 불규칙 활용 ④ 모르다	10점

수학

문항	최종 답	배점
9	$3^a + 2b = 7$	10점
10	$c = 5, \sum_{n=1}^5 b_n = 279$	10점
11	$f(3)=38$	10점
12	$a=10$, 가능한 $k=4$ 또는 5	10점
13	반지름= 25	10점

문항별 해설 · 채점 기준

국어

1 10점 4분	영역	화법 — 협상
	핵심개념	협상에서의 조건부 수용과 이익을 근거로 한 대안 제시
	출제 의도	협상 참여자가 상대방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근거로 대안을 제시한 문장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주민들이, 주십시오.	문장 찾기	5점
②	저희가, 어떻습니까?	문장 찾기	5점

① 주민 자치회장은 구청이 제안한 자정까지의 개방을 수용하면서 연락처 등록 의무화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은 ‘주민들이’, ‘주십시오.’이다. ‘구청에서’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절이 시작되는 어절일 뿐, 제안을 받아들이는 내용까지 포함한 문장 전체의 첫 어절은 아니므로 ‘주민들이’만 가능하다. 또한 ‘봅니다.’로 끝나는 앞 문장은 오후 10시까지로 개방 시간을 제한 하자는 최초 입장으로, 자정까지의 개방을 수용하면서 연락처 등록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어절이 될 수 없다.

② 주민 자치회장은 자신들이 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 구청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익을 근거로 비용 분담 방식을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은 ‘저희가’, ‘어떻습니까?’이다. ‘주민들의’로 시작하는 문장은 구청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문장이므로, 주민 자치회장이 비용 절감의 근거를 들어 제안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는 구청 담당자의 응답을 끝맺는 말이며, 주민 자치회장의 제안은 ‘어떻습니까?’로 끝나므로 마지막 어절은 ‘어떻습니까?’만 가능하다.

2 10점 5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방관자 효과, 다원적 무지, 책임 분산, 명시적 지목
	출제 의도	도움 행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방관자 효과의 두 발생 기제를 구별하고, 이를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을	추론해 쓰기	4점
②	다원적 무지	분류·판단	4점
③	명시적 지목	찾아 쓰기	2점

① 갑은 신고 수단이 있지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병은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실행 수단이 없다. 책임과 실행 수단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을이다. 가장 가까운 후보인 병은 책임을 받아들였으나 통신 수단이 없어, 실제 신고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각자가 속으로 위험을 의심하면서도 타인의 침착한 겉모습을 근거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다원적 무지에 해당한다. 책임 분산은 위급성을 인식한 뒤 자신의 책임을 약하게 느끼는 현상인데, 이 사례에서는 그보다 앞선 상황 해석 단계에서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특정한 사람을 정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맡기는 방식은 제4문단의 ‘명시적 지목’이다. ‘구체적인 과업’도 제4문단의 2어절 표현이지만 이는 맡긴 일의 성격일 뿐, 사람을 분명히 정하는 방식의 명칭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3 10점 6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책임 분산과 행동의 식별 가능성이 도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출제 의도	행동 여부가 드러나는 조건이 책임 분산을 줄이고 도움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2번과 같은 제시문(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책임 분산	찾아 쓰기	3점
②	작아진다	추론해 쓰기	3점
③	커진다	추론해 쓰기	4점

①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책임 분산’에 해당한다. 가장 가까운 다른 현상인 ‘다원적 무지’는 상황의 위급성을 잘못 해석하는 현상인데, <보기>의 참가자들은 모두 상황이 위급함을 알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② B 조건에서는 누가 행동했는지가 드러나므로 A 조건보다 책임 분산의 정도가 ‘작아진다’. 제3문단은 누가 행동했는지가 드러나는 조건에서 책임 분산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므로, 반대말인 ‘커진다’는 들어갈 수 없다.

③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책임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지므로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보기>에서는 위급성의 인식과 신고 방법·수단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책임 분산의 감소가 도움 행동을 촉진하므로 ‘작아진다’는 맞지 않으며, 이는 ‘커진다’와 ‘작아진다’를 각각 한 번씩만 쓰라는 <조건>에도 어긋난다.

4 10점 5분	영역	독서 — 과학 독서
	핵심개념	명반응의 ATP-NADPH 생성과 캘빈 회로의 탄소 고정·환원·RuBP 재생
	출제 의도	명반응 산물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질의 변화를 근거로 캘빈 회로의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환원력	찾아 쓰기	3점
②	탄소 고정 단계 허용: 탄소 고정	분류·판단	3점
③	RuBP 재생 단계 허용: RuBP 재생	분류·판단	4점

① NADPH가 전자를 제공하여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게 하는 능력은 ‘환원력’이다. 제2문단의 3음절 명사인 ‘에너지’도 떠올릴 수 있으나, 이는 ATP가 제공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전자를 제공하는 능력을 가리키지 않는다.

- ② 실험 X에서는 공급한 이산화 탄소의 탄소가 3-PGA에서 가장 먼저 검출되었으므로, 이산화 탄소가 RuBP와 결합해 3-PGA를 만드는 ‘탄소 고정 단계’가 관찰되었다. ‘환원 단계’에서는 ATP와 NADPH를 사용해 3-PGA를 G3P로 바꾸므로, ATP와 NADPH의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③ 실험 Y에서는 G3P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ATP가 소비되고 NADPH는 소비되지 않으면서 RuBP가 증가했으므로 ‘RuBP 재생 단계’가 관찰되었다. ‘환원 단계’도 G3P와 관련되지만 NADPH를 직접 사용하며 RuBP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므로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5 10점 6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집단 사고의 발생 조건·증상과 예방 절차
	출제 의도	집단 사고의 증상을 제시문의 개념어와 대응하고, 제시문과 외적 준거를 결합하여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는 절차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본문과 별개의 글을 함께 줌)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만장일치의 환상	찾아 쓰기	4점
②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허용: 토의 전에 각자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토론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재검토해야 한다, 논의 전에 개인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재검토해야 한다, 토의 전에 개인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토론 전에 각자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논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토의 전 각자의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토의 전에 구성원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따로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한다	추론해 쓰기	6점

- ① 사례의 구성원들은 침묵을 실제 찬성으로 잘못 해석했다. 제4문단에서 이 징후를 가리키는 말은 ‘만장일치의 환상’이다. 같은 문단의 ‘표면적 합의’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합의가 겉으로 형성된 상태를 가리킬 뿐 침묵을 동의로 오인하는 징후의 명칭이 아니다. 또한 ‘표면적 합의’는 5음절이어서 7음절이라는 형식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 ② 정보 표집의 편향을 줄이려면 <보기>에 제시된 대로 토의 전에 구성원별 판단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제5문단의 예방 원리와 경고 자료를 뒤늦게 읽은 사례를 고려하면 외부 의견도 결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 두 요소를 9어절로 구성하면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가 된다. ‘토의 전에 개별 판단을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도 9어절이며 제시문의 예방책을 활용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참여만 제시할 뿐 그의 의견을 실제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문이 명시한 두 내용 요소를 모두 갖춘 정답이 아니다.

6 10점 6분	영역	문학 — 현대시 + 현대시
	핵심개념	시적 대상화와 색채 이미지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출제 의도	두 시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색채 이미지의 기능을 비교하여, 해설에 대응하는 시행과 시어를 정확히 찾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가) 윤동주, 「참회록」(1942) — 2027 수능특강 문학 수록 (나) 정지용, 「향수」(1927)

칸	정답	유형	배점
---	----	----	----

①	슬픈, 뒷모양이	문장 찾기	6점
②	그리워	찾아 쓰기	4점

① (나)는 아버지·누이·아내 등 가족이 있는 고향의 모습을 펼쳐 보이지만, (가)는 화자 자신을 ‘슬픈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인물로 대상화한다. 정서인 ‘슬픈’과 신체의 후면인 ‘뒷모양’을 함께 제시한 시행은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이므로 첫 어절은 ‘슬픈’, 마지막 어절은 ‘뒷모양이’이다. 바로 앞 시행인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은 ‘홀로 걸어가는’ 모습만 나타낼 뿐 정서와 신체의 후면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 첫 어절 ‘그러면’과 마지막 어절 ‘걸어가는’은 답이 될 수 없다.

② (나) 3연의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에서 ‘그리워’는 화자가 하늘빛을 지향하는 마음을 직접 나타낸다. 같은 행의 ‘파아란’은 하늘빛의 색채를 꾸미는 말일 뿐 화자의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시어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7 10점 6분	영역	문학 — 현대소설
	핵심개념	식민지 수탈의 중층 구조, 유랑민의 처지, 반어적 서술, 서술자의 인식 변화
	출제 의도	농촌과 개인의 몰락을 연결하여 수탈 구조를 파악하고, 반어적 표현과 서술자의 인식이 확장되는 문장을 작품에서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현진건, 「고향」(1926) — 2027 수능특강 문학 수록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중간 소작인	찾아 쓰기	3점
②	특별히	찾아 쓰기	3점
③	나는, 듯싶었다	문장 찾기	4점

① 회사와 실작인 사이에서 지위를 달리 내세우며 소작료를 거둬 거두는 존재는 ‘중간 소작인’이다. ‘동양척식회사’도 수탈의 주체이지만 토지 소유자 자체이지,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여 수취 단계를 하나 더 만든 중간자는 아니다. 게다가 ‘동양척식회사’는 <조건>의 2어절에도 맞지 않는다.

② 주인은 여자가 병들어 더는 이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관계를 끝냈으므로, 이를 예외적인 호의처럼 꾸미는 ‘특별히’에는 반어가 담겨 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농민과 여성이 각각 겪은 수탈을 연결할 때 분명해진다. 가까운 후보인 ‘그래도’는 몸값을 갚고도 빛이 남은 부당함을 강조하지만, 빛의 탕감을 가해자의 선처인 듯 꾸미는 말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처음에 ‘그’를 성가시게 여기던 ‘나’는 그의 사연을 들은 뒤 그 눈물을 조선 전체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은 ‘나는’, ‘듯싶었다’이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도 태도 변화를 보여 주지만, 한 개인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진 데 그칠 뿐 식민지 조선 전체로 인식이 확대된 문장은 아니므로 ‘나는, 듯하였다’는 답이 될 수 없다.

8 10점 5분	영역	문법 — 문법 자료
	핵심개념	용언의 규칙 활용과 바·디·스·르 불규칙 활용
	출제 의도	용언의 활용형을 기본형과 대조하여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판별하고 기본형을 복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칸	정답	유형	배점
①	ㅂ 불규칙 활용	분류·판단	3점
②	걷다	추론해 쓰기	2점
③	ㅅ 불규칙 활용	분류·판단	3점
④	모르다	추론해 쓰기	2점

① ‘주워’는 ‘줍+-어’에서 어간 끝 ‘ㅂ’이 ‘우’로 바뀐 형태이므로 ㅂ 불규칙 활용이다. ‘규칙 활용’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는 <조건>에서 요구한 불규칙 활용의 명칭이 아닐 뿐 아니라 제시문의 ㅂ 불규칙 활용 기준에도 정확히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ㄷ 불규칙 활용에서는 모음 앞의 어간 끝 ‘ㄷ’이 ‘ㄹ’로 바뀐다. 따라서 ‘걸어’의 기본형은 ‘걷다’이다. ‘걸다’도 ‘걸어’라는 활용형을 만들지만 ㄷ 불규칙 활용이 아니며, ‘강변 길을 걸어’라는 문맥에도 맞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나아’는 ‘낫+-아’에서 어간 끝 ‘ㅅ’이 없어진 형태이므로 ㅅ 불규칙 활용이다. ‘나다→나아’로 보아 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문의 뜻은 감기가 ‘생기다’가 아니라 ‘낫다’이고 <조건>도 불규칙 활용의 명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④ ‘몰라’는 어간 ‘모르-’가 ‘-아’와 결합한 형태이므로 기본형은 ‘모르다’이다. ‘몰다’는 ‘-아’와 결합하면 ‘몰아’가 되고 <보기>에 명시된 르 불규칙 활용도 아니므로 기본형이 될 수 없다.

수학

9 10점 4분	단원	수학Ⅰ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평행이동·대칭, 두 그래프의 교점)
	핵심개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역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증가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출제 의도	증가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직선 $y = x$ 위에 있음을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하고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Ⅰ 25쪽 유제 5번

$f(x) = 3^{x-a} + b$ 라 하자. 두 곡선의 공통점 (u, v) 에 대하여 $v = f(u)$, $u = f(v)$ 이고 f 가 증가함수이므로 $u = v$ 이다.

따라서 두 교점은 $(1, 1)$, $(2, 2)$ 이고, $3^{1-a} + b = 1$, $3^{2-a} + b = 2$ 이다.

두 식을 빼면 $2 \cdot 3^{1-a} = 1$ 이므로 $3^a = 6$ 이고, 첫 번째 식에서 $b = \frac{1}{2}$ 이다.

그러므로 $3^a + 2b = 6 + 1 = 7$ 이다.

[채점 기준]

답안	배점
f 가 증가함수이므로 공통점 (u, v) 에서 $u = v$ 이고, 두 교점은 $(1, 1)$, $(2, 2)$ 이다.	4
$3^{1-a} + b = 1$, $3^{2-a} + b = 2$ 에서 $3^a = 6$, $b = \frac{1}{2}$ 이다.	3
$3^a + 2b = 7$ 이다.	3

10 10점 5분	단원	수학Ⅰ — 등차수열·등비수열, 수열의 합
	핵심개념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합
	출제 의도	등차수열의 합으로 공차를 결정하고, 등비중항의 성질로 미지 상수를 구한 뒤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Ⅰ 80쪽 Level 2 4번

등차수열 $\{a_n\}$ 의 공차를 d 라 하면 $\sum_{n=1}^6 a_n = \frac{6\{2+5d\}}{2} = 51$ 이므로 $d = 3$ 이다.

따라서 $a_n = 1 + 3(n-1) = 3n - 2$ 이고, $a_2 = 4$, $a_5 = 13$, $a_{11} = 31$ 이다.

$a_2 + c$, $a_5 + c$, $a_{11} + c$ 가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13 + c)^2 = (4 + c)(31 + c)$ 이다.

이를 정리하면 $9c = 45$ 이므로 $c = 5$ 이다.

따라서 $b_1 = 9$, $b_2 = 18$, $b_3 = 36$ 이므로 등비수열 $\{b_n\}$ 의 공비는 2이다.

그러므로 $\sum_{n=1}^5 b_n = 9 \times \frac{2^5 - 1}{2 - 1} = 279$ 이다.

[채점 기준]

답안	배점
$d = 3, a_n = 3n - 2$ 이므로 $a_2 = 4, a_5 = 13, a_{11} = 31$ 임을 구함	3
$(13 + c)^2 = (4 + c)(31 + c)$ 를 세워 $c = 5$ 를 구함	5
$b_1 = 9$, 공비가 2이므로 $\sum_{n=1}^5 b_n = 279$ 를 구함	2

11
10점
5분

단원	수학II —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핵심개념	함수의 연속, 제거 가능한 불연속, 다항식의 인수정리
출제 의도	유리식으로 주어진 함수의 연속성에서 분자의 영점을 찾고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여 이차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II 15쪽 Level 2 5번

함수 $g(x)$ 가 $x = 1, x = -2$ 에서 연속이므로 어떤 상수 A, B 에 대하여 $xf(x) - 4 = (x - 1)(x + 2)(Ax + B)$ 이다.

$x = 0$ 을 대입하면 $-4 = -2B$ 이므로 $B = 2$ 이다.

$g(1) = A + B = 5$ 이므로 $A = 3$ 이다.

따라서 $xf(x) - 4 = (x - 1)(x + 2)(3x + 2) = 3x^3 + 5x^2 - 4x - 4$ 이므로 $f(x) = 3x^2 + 5x - 4$ 이다.

그러므로 $f(3) = 27 + 15 - 4 = 38$ 이다.

[채점 기준]

답안	배점
$xf(x) - 4 = (x - 1)(x + 2)(Ax + B)$ 임을 구함 (또는 $xf(x) - 4$ 가 $(x - 1)(x + 2)$ 로 나누어짐을 구함)	4
$x = 0$ 과 $g(1) = 5$ 를 이용하여 $B = 2, A = 3$ 을 구함	3
$f(x) = 3x^2 + 5x - 4$ 에서 최종 답 $f(3) = 38$ 을 구함	3

12
10점
7분

단원	수학II —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핵심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도함수, 순간속도, 도함수의 부호, 최솟값
출제 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제곱을 미분하여 매개변수를 정하고, 이를 속도의 최솟값과 부호 분석에 연결하여 운동 방향 조건을 판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II 41쪽 Level 1 7번, 2027 수능특강 수학II 71쪽 Level 2 6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따라 $f(x) = \frac{|x^2 + 2x + a - 2|}{\sqrt{2}}$ 이므로 $g(x) = \frac{1}{2}(x^2 + 2x + a - 2)^2$ 이다.

$g'(x) = (x^2 + 2x + a - 2)(2x + 2)$ 이므로 $g'(0) = 2(a - 2) = 16$ 에서 $a = 10$ 이다.

점 Q 의 속도를 $v(t)$ 라 하면 $v(t) = s'(t) = t^3 - kt^2 + 10(k - 3)$ 이고, $v'(t) = t(3t - 2k)$ 이므로 $v(t)$ 는 $t = \frac{2k}{3}$ 에서 최솟값 $10(k - 3) - \frac{4k^3}{27}$ 을 갖는다.

$k \leq 3$ 이면 출발 직후의 속도와 충분히 큰 시각에서의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고, $k = 4, 5$ 이면 각각의 최솟값이 $\frac{14}{27}, \frac{40}{27}$ 이므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k \geq 6$ 에서는 $10(k-3) - \frac{4k^3}{27} < 0$ 이므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따라서 $a = 10$ 이고 가능한 자연수 k 는 4, 5이다.

[채점 기준]

답안	배점
$g(x) = \frac{1}{2}(x^2 + 2x + a - 2)^2, g'(0) = 2(a - 2)$	1
$2(a - 2) = 16$ 에서 $a = 10$	1
$v(t) = t^3 - kt^2 + 10(k - 3)$ 이고 $t = \frac{2k}{3}$ 에서 최솟값 $10(k - 3) - \frac{4k^3}{27}$ 을 가짐 (또는 $v\left(\frac{2k}{3}\right) = 10(k - 3) - \frac{4k^3}{27}$)	4
$a = 10$, 가능한 모든 자연수 k 는 4, 5	4

13

10점
6분

단원	수학Ⅰ — 삼각함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그림 없이)
핵심개념	원에 내접한 사각형, 코사인법칙, 사인법칙,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출제 의도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각의 관계와 코사인법칙으로 대각선을 결정하고, 사인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Ⅰ 60쪽 Level 1 3번

$\angle ABC = B, \angle ADC = D, \overline{AC} = x$ 라 하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마주 보는 두 각의 합은 π 이므로 $\cos B + \cos D = 0$ 이다.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frac{14^2 + 30^2 - x^2}{2 \times 14 \times 30} + \frac{48^2 + 40^2 - x^2}{2 \times 48 \times 40} = 0$ 이므로 $32(1096 - x^2) + 7(3904 - x^2) = 0$ 이다. 따라서 $x^2 = 1600$ 이고 $\overline{AC} = 40$ 이다.

$\cos B = \frac{14^2 + 30^2 - 40^2}{2 \times 14 \times 30} = -\frac{3}{5}$ 이고 $0 < B < \pi$ 이므로 $\sin B = \sqrt{1 - \cos^2 B} = \frac{4}{5}$ 이다.

원 O 의 반지름을 R 라 하면 사인법칙에 의하여 $2R = \frac{\overline{AC}}{\sin B} = \frac{40}{4/5} = 50$ 이므로 $R = 25$ 이다.

[채점 기준]

답안	배점
$B + D = \pi$ 이므로 $\cos B + \cos D = 0$	1
$32(1096 - x^2) + 7(3904 - x^2) = 0$ 에서 $x^2 = 1600, \overline{AC} = 40$	4
$\cos B = -\frac{3}{5}, \sin B = \frac{4}{5}$	2
$2R = \frac{40}{4/5} = 50$ 이므로 $R = 25$	3